오근식
건국대학교병원 홍보과장

길위의 풍경
해남에서 만난 사람들

두륜산에서 바라본 강진만.

김남주 시인 생가.

연못의 수련과 꽃무릇.

좋은 경치 속 들어가 사모하고 그리워할 만한 사람들의 자취가 샘처럼 솟아나는 여행지를 꼽자면 단연 해남이 으뜸입니다.
우연히 김용택 시인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를 읽었습니다. 섬진강에 달이 휘영청 떠오른 어느 날 김남주 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강변에 달이 곱다고. 그래서 해남에 갔습니다. 암울했던 시절을 살며 좋은 시절을 만들겠다고 목숨을 걸었던 시인이 태어나 자란 마을과 들이 궁금했습니다.

삼산면 봉학리의 김남주 시인 생가 마을은 아늑했지만 풍요롭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생가에서 서성이며 그의 글을 읽고 그의 자취를 보며 그의 삶이 잘 마른 참나무 장작의 강렬한 불꽃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는 그를 전사라 부르고 또 누구는 투사라 합니다. 시인이 남긴 잉걸이 아직 사람들의 가슴에 선연하게 살아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남주 시인의 생가에서 3 킬로미터쯤 떨어진 삼산면 송정리엔 고정희 시인의 생가가 있습니다. 넉넉한 들 한쪽에 자리한 작은 언덕에 의지하고 있는 이곳에 가면 마음이 한 없이 편안해집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시인의 친척 어른이 고정희 시인의 자료를 모아둔 별채 문을 열어주며 편히 있다가 가시라 합니다.

낯설지만 조용한 방에 앉아 편안히 그의 시를 읽었습니다.
해남 여행의 백미는 대흥사를 품고 있는 두륜산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두륜산의 고계봉에 오르

▲꽃창살이 아름다운 천불전.

면 그 아래 펼쳐진 들과 바다와 섬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시원한 경치를 또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왼쪽 저 멀리 보이는 강진을 바라보며 만덕산의 다산초당과 백련사를 오가던 다산 정약용을 생각했습니다. 정면 남쪽의 큰 섬은 완도가 분명하고 오른쪽 먼 곳의 어느 섬이 진도일 것입니다.
올망졸망한 섬들을 뿌려놓은 바다를 바라보다 시선이 진도 쪽으로 향하면서 가슴에 응어리가 생기는 듯했습니다.

내려와 대흥사로 향합니다. 어떤 이는 전각 곳곳에 남아 있는 선비들의 흔적을 찾아 이곳에 오고 또 어떤 이는 우리나라 차 문화의 중심에 있는 초의선사와 일지암을 보기 위해 옵니다.
두륜산의 풍광이 워낙 좋으니 등산길에 잠시 지나기도 합니다.

대흥사는 17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원교 이광사,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그리고 소치 허련과 인연을 맺었던 절입니다.
그 중심에는 유학과 시문까지 조예가 깊었던 혜장과 초의선사가 있었습니다. 혜장과 초의는 정치 중앙 무대에서 권력 싸움에 휘말려 다시 돌아갈 기약 없는 유배길에 나선 다산, 추사와 교류하며 차와 학문을 나누었습니다.

매표소 앞의 첫 번째 일주문에서 유선관 여관을 지나 두 번째 일주문까지는 1 킬로미터가 조금 넘는 거리인데 한 마디로 걷기에 좋은 길입니다.

울창한 나무 그늘 속으로 이어지는 길을 걷다보면 어느새 세상사 다 잊습니다. 늦은 봄 나뭇잎이 거의 다 피어날 무렵 비라도 슬쩍 뿌린다면 이 길 위에서 누구라도 시인이 됩니다.

그렇게 걷다보면 오른쪽 길가에 나무에 붓글씨로 써서 새긴 유선관 간판이 보입니다. 십여 년 전 이곳에서 하룻밤 지낸 적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흐르는 도랑의 물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주말이라면 옛날의 조용한 정취를 느끼기엔 다소 소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주문과 마주합니다. 예서체의 현판 글씨 '두륜산대흥사(頭輪山大興寺)'는 여초 김응현 (如初 金膺顯) 선생이 썼습니다. 그의 형 일중 김충현과 함께 우리나라의 20세기 현대 서예의 중흥기를 이끈 명필이었습니다.

부도밭을 지나 다리를 건너 오르면 만나는 세 번째 문에는 '두륜산대흥사'라는 행서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살았던 해사 김성근 (海士 金聲根)의 글씨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꼿꼿하고 청렴한 관리이자 학자였고 서예가로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아 친일행위자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문으로 들어가 돌아서서 보면 문밖 세상의 풍경도 볼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득 '해탈문'이라는 편액이 보입니다.

원교 이광사 (圓嶠 李匡師)의 글씨입니다. 원교는 추사보다 한 세대 전에 시대를 풍미한 조선 후기 최고 서예가 중의 한 명입니다.
아버지 형제가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면서 그 여파로 원교는 세상에 나가 이렇다 할 뜻을 펴보지도 못하고 유배 생활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 두륜산 아래 대흥사 전경.

그는 여러 사찰에 편액을 남겼는데 글씨들은 가슴에 맺혀 있는 응어리들이 붓끝을 통해 서리서리 풀어져 획 속에 뼈가 된 듯 얼핏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흥사엔 해탈문(解脫門), 침계루 (枕溪樓), 대웅보전, 천불전의 편액이 그의 글씨입니다.

1. 추사 김정희의 글씨 무량수각 2. 원교 이광사의 글씨 대웅보전

여러 문을 지나 대흥사 마당에 들어서면 문득 무엇인가 그간 보아온 절집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일주문을 지나고 그 안의 문을 하나 또는 둘쯤 지나면 대웅전이 보이기 마련인데 대흥사에서는 앞에 대웅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의 시내를 건너 침계루를 지나면 거기에 대웅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구조는 대흥사가 자리한 방향 때문입니다.

대흥사는 서쪽으로 향한 두륜산 품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절집을 향해 가는 길이 동쪽을 향하

고 있습니다.
대웅전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흥사의 왼쪽, 북원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흥사 마당에 서서 정면에 가허루라는 편액이 보이는데 창암 이삼만 (蒼巖 李三晩)의 글씨입니다. 원교 다음 세대인 창암 이삼만 (蒼巖 李三晩)은 원교의 글씨로 시작해 조선 말 최고 서예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호남에서 글씨로 이름이 높았지만 원교와 창암은 그러나 추사 김정희로부터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권문세가의 자손으로 태어나 일찍부터 청의 고명한 학자들과 교류했던, 말하자면 해외유학파인 추사의 눈에 호남에 머물며 일가를 이룬 원교와 창암의 글씨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촌스러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추사가 제주도로 유배가던 중에 대흥사에 들렀을 때 원교의 글씨 '대웅보전' 현판을 떼어내라 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만큼 원교의 글씨에 대한 추사의 평가는 혹독했습니다.

50대 중반부터 시작한 유배생활을 마치고 60대 중반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흥사에 다시 들른 추사가 원교의 편액을 보고 다시 한 마디 합니다. "다시 보니 괜찮군." 십여 년 전 추사가 제주도 유배 가며 쓴 예서체 편액 '무량수각(无量壽閣)'은 대웅보전 왼쪽의 백설당 건물 처마 아래에 걸려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한 마당에 서 있습니다.

▼ 두륜산대흥사 일주문.